

# 시대정신을 위한 교육 담론으로서 비판교육학의 가능성 탐구 Inquiring the Possibility of Critical Pedagogy as Discourse for 'Zeitgeist'

허창수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Changsoo Hur(cshur@cnu.ac.kr)

## 요약

한국 사회는 2017년 체제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정신은 이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사회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다. 교육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러한 사회 정치적 체제의 시작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중심이 된 교육 자치는 시민 교육 운동의 일환인 대안 교육이 공교육에 학교 혁신 등을 통한 유입이 가속되고 있다. 진보 진영 뿐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조금씩 이를 받아들인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 공교육을 대안 할 수 있는 교육적 거대 담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논의 교육의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정신에 타당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목적으로 갖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어떤 이론적 담론이 시대정신을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2)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 담론에 기초한 실천적 방향으로 어떤 담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련 문헌들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의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비판교육학과 브리콜라주라는 실천 또는 실행을 강조하는 비판적 의식과 창의성을 생산할 수 있는 담론을 소개하고 그의 실천적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2017년 체제 | 4차 산업혁명 | 패러다임 이동 | 비판교육학 | 브리콜라주 | 시대정신 |

## Abstract

Korean society is now in the 2017 system. The zeitgeist is now hoping to move into a society wher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centered on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is recognized, and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aradigm shifts in the education arena began before the start of this socio-political system. The educational autonomy centered on the progressive education superintendent is accelerating the influx of alternative education, which is part of the civic education movement, through public school reforms.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progressive camp but also the conservative government emphasized educational policies such as the liberal semester system, which was gradually adopted by the government. For education that is appropriate for a rapidly changing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educational grand-discourse that can alternate current public education. Although it does not mean only one discourse, it is a necessary process to systematically consider alternate educ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future educ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discourse that can produce critical consciousness and creativity that emphasize the praxis and practice through critical pedagogy and bricolage.

■ keyword : | the 2017 Regime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Paragime Shift | Critical Pedagogy | Bricolage | Zeitgeist |

\* 본 연구는 2017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지원사업(CNU학술연구과제)에 의해 진행되었음.

## I. 서론

한국 사회는 현재 커다란 전환기에 있다[1]. 봉건적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 구조, 냉전과 그 이후 2001년 9/11 사건이 생산한 군국주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 인정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큰 흐름 속에서 사회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저항, 예컨대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인권 등 다양한 쟁점들을 표출하고 시도해 왔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의 도화선이 된 것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작한 촛불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적폐가 청산되어야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혁명이라 하기는 이르지만, 그 과정에서 마치 도박을 하듯 위태롭게 외출 사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2017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촛불정부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정부의 시작은 사회·정치적으로는 2017년 체제라고 한다[2]. 이를 감히 시민혁명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체제의 완성도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 체제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 인권, 평화이다. 이는 소위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을 심판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만을 담은 것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근대사와 연계된다. 해방 이후 48년 체제는 극우반공체제, 61년 박정희 체제는 개발 독재, 72년 이후는 유신체제가 있었다. 이후 민주주의가 처음 출현한 것은 미완 된 민주화의 87년 체제이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일환이었으며 현정체제의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되는 97년 체제는 지배 계급과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의 변화였다. 이후 2001년 9/11 사건으로 인한 군국주의, 2007년 금융경제의 탐욕과 함께 뉴욕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국의 일방주의와 함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강화되었다. 이러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체제적 변화 방향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것과는 다른 곳을 향해가고 있었다. 예컨대,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들을 제기하였다. 시민들의 이러한 의문은 사실 근대화 이후 지속해서 축적되어 왔다. 2016년 10월부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움직임은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후 시민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2017년 체제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바로 이러한 계급, 군국주의, 식민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 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상징들로 설명되는 이 시대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마치 유행처럼 이끌어가고 있다[3][4].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슈밥(K. Schwab)에 의해 제안된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래를 위한 지향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술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첨단 기술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것이 가진 특성은 상호운영성, 정보투명성, 기술지원성, 분권결정성 같은 초연결, 투명성, 분권성의 의미도 담고 있다[5][6]. 이러한 특성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맥락에서 다양한 변화와 커다란 이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투명성, 분권성과 같은 의미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나 특정 집단이 가진 권력을 분산하고 개개인의 권리와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5], 현 한국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밀접한 관련성을 끌어낼 수도 있다. 다만 기술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이처럼 한국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의 발전적 진화, 2017년 체제론과 같이 한국 사회의 혁명적인 변화와 함께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갈망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달성은 진행 중이며, 변화를 위한 강력함 움직임이 있고 이를 위해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육은 이미 2010년 이후 교육 자치 행정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에 확대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는 보수 성향을 가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와 같은 대안 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진보 성향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과 비교할 때 대안 교육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진보 교육의 지향을 담고 있다. 이처럼 교육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사회 체제 지향과의 불일치로 인해 지지 부진해왔다. 예컨대 시·도 단체장, 정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 차이로 특정 진보적 교육 정책은 갈등을 생산하며 표류하였다. 2018년 이후 진보선향의 단체장과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상황은 달라졌고, 교육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이 변화를 맞이하여 미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정신을 위한 교육의 지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본 논의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학문적 담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논의는 그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적폐를 이해하고 그를 청산하기 위한 논의를 의미한다. 반면 최근 들어 한국은 경제적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5]. 또한 교육 맥락에서의 변화, 예컨대 교수 학습 등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4][7][8].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혁명적 전환과 함께 교육 패러다임의 이동을 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 단순히 기존의 토양에서 기술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논의는 이러한 표층의 변화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존재론과 인식론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고 그에 대한 배경으로 이론 담론을 논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론 담론이 가진 단점은 실천성의 결여이다. 본 논의는 이론 담론을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진 실천과 실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현 교육 패러다임 이동 배경이 될 수 있는 실천 이론 담론과 그것이 가진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찾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은 비판교육학이고 그것이 가진 실천성과 타당성은 브리콜라주이다.

## II. 교육 패러다임의 이동

본 장은 비판교육학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 교육의 위치를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을 논의한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위한 수행이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2017년 체제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이미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특히 현 사회 변화는 이러한 교육의 시도들을 가속하는데 풍부한 배경이 되고 있다.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 2018년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4개 지역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함께 단체장을 포함한 각종 지방행정 선출직에서 진보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선출되면서 움직임은 예고된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때 가속화될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의 시대적 변화를 위한 것이지만 사회 정치의 적폐청산 움직임과 같이하고 있다. 교육은 현재 패러다임 이동 시기에 있다. 이는 적폐청산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교육에서의 적폐가 지시하는 것은 근대 교육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 근대 이전과 이후 흐름이 가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가 가진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시대 지배 계급을 재생산하는 헤게모니 역할을 하던 교육은 근대 교육을 받아들 이면서 대중화 노력을 했지만,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욕심을 강화하면서 실패하는 결과가 되었다[9][10]. 이후 일제 강점기를 접하면서 군국주의가 주요 이데올로기가 된 식민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10]. 해방 이후 미국교육의 흐름을 토대로 대중을 위한 교육의 모습으로 새로운 지향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였지만,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흐름과 함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학력주의,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일제강점기가 남긴 잔재의 관성에 의한 군국주의와 식민주의, 위계 구조로 인해 생산되는 권위주의, 행정 편의가 강조되는 관료주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적 교육 과정은 그 맥을 근대 교육 이전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기능으로서 재생산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학교교육은 약탈적 학력이 가장 강조되는 기이한 형태로 왜곡되어 왔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인 'SKY 캐슬'과 같은 상황이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교육의 적폐로 인한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이 가진 특성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의미에서 멀어져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 적폐청산은 바로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약화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은 사회와 정치적 변화 이전부터 이동이 가시화되었다. 이는 대안 교육 운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대안 교육은 교육이 가진 본연의 모습을 인간 중심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시민운동이었다. 실제로 대안 교육은 근대 교육 이전부터 지속해서 형태를 달리하여 이어져 왔다. 예컨대, 일제강점기 식민교육의 대안으로 민족교육을 시도하였고, 해방 이후 신교육, 새교육, 참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대안 교육에 대한 운동은 지속하였다[11]. 현재 교육 혁신이 중심된 변화의 시작은 대안 교육 운동으로 불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보고 있다[12].

역사적 흐름을 가진 대안 교육은 현재 공교육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가시화되고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예컨대, 두 가지 교육 정책은 경기도 지역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자유학기제이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 정책은 현재 17개 시·도에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지정된 혁신 종류의 학교는 10%가 넘는 수에 이른다[13]. 이는 17개 시·도 일반과 교육 행정에 있어서 진보 성향의 단체장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된다. 대안 교육의 공교육 유입은 진보 진영만의 교육 정책 지향은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창의·인성교육에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운영은 대안 교육이 주를 이루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현상을 볼 때 현재 패러다임 이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한국의 근대 교육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계급의 재생산 등 적폐청산을 못하였다. 이는 일본제국의 식민주의에 기초한 교육과 결합되었다. 이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군국주의와 식민주의, 학력주의와 성과주의, 경쟁주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등이라는 적폐들을 생산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항적 헤게모니로서 대안 교육 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적폐에 대한 인식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진보와 보

수 할 것 없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학교 혁신, 자유학기제 등과 같은 대안 교육에 뿌리를 둔 교육 정책을 하나씩 공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방분권화를 위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단체장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가속화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적폐청산을 지향으로 한국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맥락에서 커다란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현상과 맞물려 과거와는 다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사건 중의 하나는 바로 사립유치원사태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응은 사뭇 관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목격해 왔다.

### III. 이론 담론, 비판교육학

#### 1. 비판교육학의 필요성

비판교육학이 이론적 배경이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언급한 것처럼 2017년 체제는 교육을 포함해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 교육에서 의미하는 적폐는 예시한 것처럼 성과 중심 학력주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군국주의와 식민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등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며 사회 구조를 형성해왔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육은 하나의 헤게모니로서 대항적 주체를 생산하고 의식적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강조하는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교육 이념이며, 바로 비판교육학의 지향이다. 둘째, 최근 들어 교육을 통해 양성할 인력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이다. 이를 위해서 학문 중심 대신 역량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4][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맞도록 역량 또는 능력 중심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역량 중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협동 또는 협업력, 소통력 등이다

[4][7][8]. 이 역량 또는 능력들은 비판교육학이 추구하는 것이다. 즉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의식적 해방을 달성하는 과정은 기존 지식, 상황, 현상 등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소통적, 협력적, 창의적 방식에 의해 의식화한다. 두 가지 예로 살펴볼 때 비판교육학은 미래 교육을 위한 이론 담론으로 충분히 타당하다.

## 2. 비판교육학의 개념 이해

비판교육학(critical pedagogy)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단어가 가진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비판교육학은 '비판'과 '교육학'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비판은 독일 철학자가 사용한 방식을 존중해서 개념화해야 한다. 비판이론에서 가져온 비판이란 의미는 학자들이 1923년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 설립한 사회연구소에서 독일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성(human reason)과 합리성(rationalization)을 통한 인간의 존재와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대 담론의 표상인데, 그 의미의 논리와 사고의 시작은 칸트(I. Kant)가 사용한 독일어 단어 '크리틱(kritik)'이며 이것이 가진 의미는 한국어에 따르면 비판(批判, criticism)과 비평(批評, critique)을 모두 포함한다. 비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비평은 장단점을 고려하여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비판교육학의 비판은 후자 의미가 더 강조한다. 이는 사고의 방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비판이론에서 비평은 변증학으로 불리는 변증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판의 의미는 흔히 정반합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운동으로 이해되는 변증법이다. 특히 해석학적 관점과 연결하면서 해석학적 변증법은 비판교육학에서 비판이 가진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사고와 논리의 방법인 해석학적 변증법을 통한 운동이 인간 이성의 역할이며 그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14].

두 번째는 '교육학'이 가진 의미이다. 흔히 교육학은 '에듀케이션(education)'으로 표현되는데 비판교육학에서 교육학은 '페даго지(pedagogy)'이다. 고대 그리스어 *παιδάγωγία* (paidagōgia)에서 유래한 *παῖς* (país)는 '아동'을 *ἄγω* (ágō)는 '이끌어주다'라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15]. 라틴 어원인 '페다고기아(paedagogia)' 또는 '페다고구스(paedagōgus)'로, 14세기 이후 영어로 페다고지(pedagoge), 16세기 프랑스에서 '페다고지(pédagogie)'로 사용하면서 변화되었다고 한다.

반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에듀케이션(education))'의 라틴 어원 'ēducātiō(eː.dōˈkaː.ti.oː)'은 'ēducō(eːˈduː.koː)'라는 '훈련하다'와 'ēdūcō'라는 '앞으로 이끌다', '데리고 가다', '기른다' 'dūcō(duː.koː)'라는 '이끌다'라는 의미들을 종합할 때 '기르다, 훈련하다, 이끌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17]. 어원을 추적해보면 차이가 있지만 서로 간 사전적 의미는 유사해서 함께 사용 가능하다. 다만 비판교육학은 전자를 교육학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 시작은 프레이리(P. Freire)의 '피억압자들을 위한 페다고지(Pedagogy of the oppressed)'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는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교육(education)'의 개념을 은행 적금 체제(banking system)처럼 운영되는 억압자를 위한 지식 전수로 규정하고, 이것이 가진 폐해로 억압과 피억압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천적 의미를 담은 교육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를 위해 '페다고지(pedagogy)'를 통해 교육이 가진 의미를 재개념화하였다[18]. 사전적 의미처럼 이끌어주는 행위를 교육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페다고지로서의 교육이 강조하는 이끌 곳은 해방으로 그 방법은 의식적 자각, 각성, 성찰 등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

프레이리가 강조한 교육 개념의 핵심은 실천(praxis)에 있다[18].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의식적 해방에 있다. 능동적, 자율성, 자주성, 자기결정권을 강화를 할 수 있는 의식화된 상태가 바로 해방이다. 실천은 이러한 의식적 깨어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동적인 주체에서, 다시 말해서 억압자들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실천으로 보았다. 교육과정은 이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한 활용은 당연히 언어이다. 인간의 의식을 행위, 행동,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인 언어이며 자기언어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 가진 실천성, 그것을 통한 사회 정치적 참여는 실천이 가진 또 다른 확장된 의미이다. 교육은 이러한 참여와 문화

정치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비판교육학의 비판은 해석학적 변증법적 사고를 의미하고 교육은 의식적 해방을 실천하는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판교육학이 의미하는 것은 변증법적 사고를 방법으로 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의식의 해방을 의미한다. 즉 능동성, 자주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자들의 개념들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킨첼로(J. Kincheloe)[19]는 비판교육학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며 실행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1) 교육실행과 공정성의 쟁점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2) 학교 교육은 민주주의적인 실행과 거대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또는 전복하고자 하는가? 3) 학교 교육은 인종,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종교, 지역 토착민/원주민 쟁점, 신체적 능력 등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 또는 도전하는가? 4) 사회, 문화, 경제 영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교실 구성의 다양성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5) 학교와 다른 사회적 기관에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지식이 더 큰 사회 안에서 정치적 관계로 어떻게 복제되고,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제거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실행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되는가? 6) 다양한 미디어는 사회 이데올로기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7) 대중문화의 교육학적 역할은 무엇인가? 8) 새로운 기술에 대한 헤게모니와 대항 헤게모니 차원은 무엇인가? 9) 비판적 방법과 이해를 어떻게 사용하면, 학습과 전환적 사회 실행을 쫓는 기쁨과 행복을 생산 가능한 욕망 에너지 안으로 넣도록 개인을 자극할 수 있을까?

맥라렌(P. McLaren)[20]은 비판교육학이 주로 활용하는 개념을 4개 영역 1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식은 사회구성체이며 지식의 형식, 계급, 문화, 지배/종속/하위문화, 문화 형식,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편견의 개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둘째, 권력 관계의 형성과 실행을 담론으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은 문화정치의 형태이다. 넷째, 학교는 사회와 문화 재생산 그리고 저항이론에 의해 이해해야 한다.

### 3. 비판교육학의 활용 가능성

이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의에서 한국 교육의 적폐로 주장하는 이념을 비판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은 학력, 성과, 권위, 경쟁 등의 이념들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근대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맥락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이념들은 학교 교육에 적용과 활용된 지식과 문화를 통해 권력관계에 기초한 구조를 형성하고 재생산 역할을 해왔다. 학교 교육과정은 이러한 지식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위해 편성하고 운영하였다. 이 지식과 문화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이는 계급, 문화, 이데올로기, 편견 등을 담은 일종의 헤게모니로서 정치의 장소이지만 지식이 가진 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지배, 종속, 하위문화의 재생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장은 사회 정의, 공평, 평등을 생산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 사회의 적폐, 즉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군국주의와 식민주의, 학력주의와 성과주의, 경쟁주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등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데 학교 교육이 기여해왔다. 비판교육학은 이러한 현 한국 교육의 적폐 이념들에 대한 비평을 통해 각 구성원의 의식적 해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적폐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사상들이 가진 모순과 함께 일제강점기라는 민족 역사 단절과 함께 생산된 이념들이 중심에 있다. 지배계급의 재생산 역할을 전통적인 이념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재편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일본이라는 제국에 의해 생산된 식민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서 생산된 계급 이외에 조선 후기 근대화와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결합하였고, 해방 후 이를 청산하지 못하고 반공, 개발독재, 그리고 신자유주의 등이 생산한 권력 관계에 따른 사회 구조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식민주의는 사회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의식적 성찰을 통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고 그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해방을 통해 2017년 체제가 추구하는 바를 담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비판교육학이 안내할 수 있는 하나의 담론으로 적합

하다.

또한 비판교육학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바와도 그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진화뿐 아니라 그것이 가진 투명성과 분권성은 권력의 해체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방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과 블록체인(blockchain)이 가진 특성과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역량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비판교육학에서 주장하는 변증법적 운동을 통한 해방, 평등과 공정한 사회 구현과 서로 그 지향을 같이하고 있다. 이 의미 해석이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생산할 수 있지만 비판교육학의 지향 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비판이론과 함께 비판교육학은 교육적 맥락에서 교육사회학과 함께 급성장을 했지만 소련의 붕괴와 함께 잠시 주춤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비판이론에서 강조하던 마르크스주의와 관련 이념들에 대한 의심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판교육학은 비판이론에서 실천이라는 중요한 교육적 실행을 강조하면서 독일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다양한 이론을 포섭하면서 확장해 간다. 예컨대 비판교육학은 이론보다는 교육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보드리야르(J. Baudrillard), 푸코(M. Foucault), 데리다(J. Derrida), 이레가라이(L. Irigaray), 크리스티바(J. Kristiva), 식수(H. Cixous), 바흐친(M. Bakhtin), 비고츠키(L. Vygotsky)까지 프랑스뿐 아니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론가들의 사상에 기초한 실천으로 확대, 성장하였다[14][21]. 이후 다양한 사상들의 투쟁에서 중요하게 자리 잡은 탈식민주의, 탈근대주의와 함께 시대적 거대담론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판교육학을 하나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미래 교육을 구상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 IV. 실천과 방법 담론, 브리콜라주

### 1. 브리콜라주의 의미 이해

비판교육학은 앞 장에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프레이

리식 '실천(praxis)'이 핵심이지만 비판교육학에 대한 중요한 비평으로 실천성에 대한 부재를 내부적으로도 논의해왔다[22][23]. 그렇다면 그동안 비판교육학자들은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에 빠진 교육학을 주장해 왔는가. 이 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그것이 가진 비판교육학적 실천의 의미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다.

브리콜라주(bricolage)는 194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권위에 대한 대항적 미술 운동으로 전통적인 미술 제작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지배 계급과 억압, 그리고 특권 등의 특성을 대중성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24]. 그들의 작품들은 비판적인 성찰과 함께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전통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 등과 같은 억압의 도구가 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담은 재료와 의미들을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들을 생산해왔다. 이는 1960년대 레비스트로스(C. L-Strauss)가 지식의 형성 과정이 가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1990년대 이후 영미권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교육 영역에서 양적 연구의 대항적인 방법론으로, 심지어 대안적 방법론으로 급성장한 질적 연구 방법을 정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25].

브리콜라주가 가진 특성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비판적 성찰을 담은 짜깁기'로 이해할 수 있다[26]. 여기 비판적 성찰은 방법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판교육학자들은 이를 필연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포함하여 '해석학적 변증법적 짜깁기'로 개념화하고 있다[27-29]. 비판교육학의 필연성을 포함한 브리콜라주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질적인 연구 분야에서도 인정되어 브리콜라주와 비판교육학은 많은 동질성을 수용해 왔다[29]. 또한 미술 운동의 시작 배경을 볼 때 레비스트로스나 질적 연구자들이[25] 초기에 사용했던 짜깁기라는 것은 방법론적 의미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가진 비판적 성찰과 해체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존재론과 인식론적 의미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 역할을 비판교육학이 하였다[28][29].

### 2. 브리콜라주의 활용

브리콜라주라는 개념은 국내에서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았다. 교육 영역을 제외한 인문, 경제, 미디어, 영화 등 소수 소개된 바는 있다[26]. 이것이 가진 의미를 본 논의에서 활용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브리콜라주는 짜깁기이다. 행하는 주체는 브리콜뢰르(bricoluer)이다. 예컨대 각종 분야의 학자나 예술가 스스로가 브리콜뢰르인데, 이들이 생산하는 지식이나 여러 작품들은 그들이 가진 도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도구를 활용하여 짜깁기하여 생산하는 과정이 바로 브리콜라주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중요한 관점 또는 담론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질적 연구 방법론이 가진 성찰을 통한 이해와 해체를 통한 재구성이다. 이러한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능동성, 자주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것을 보편타당하고 당위적으로 이해하여 재생산하는 것은 브리콜라주일 수 없다. 그래서 비판교육학이 가진 의미처럼 해석학적 변증법을 활용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실천이 바로 브리콜라주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27-29]. 이를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 요약하면 브리콜라주는 1) 실재의 표출과 내장, 2) 보편성에 대한 의문, 3) 다의성 인식, 4) 문화정치라는 삶의 과정 이해, 5) 연결 존재로서 존재론, 6) 맥락의 교차성, 7) 다차원적 인식론, 8) 상호텍스트성, 9) 담론의 맥락적 구성성, 10) 지식의 해석적 특성, 11) 생산의 창작성, 12) 문화적 생산물로서 지식, 13)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다[26][29]. 브리콜라주와 브리콜뢰르의 방법적 과정과 그를 실행하는 주체의 특성은 비판교육학이 생산하는 교육과정과 그를 운영하는 교육자의 태도이다. 즉 잡다한 이론적 성찰을 통한 상황과 현상에 대한 다중적, 다의적, 다각적 이해, 그를 통해 실행하는 실천적 모습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29].

### 3. 브리콜라주로서 비판교육학

브리콜뢰르로 말할 수 있는 비판교육학자들이 생산하는 실천과 실행은 브리콜라주이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제, 예컨대, 학생, 부모, 교사, 직원, 환경

이라는 공간과 소유물, 교구재 등 중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브리콜라주는 학생들 스스로 언어를 찾도록 의식적 성찰, 해체, 재구성, 해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 이것은 교사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 생산하는 지식과 문화 그리고 그를 통한 존재는 바로 비판교육학에서 원하는 일종의 브리콜라주이다. 이들은 능동적이며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품은 존재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의 구성적 생산은 창의성, 창조적 역량을 지닌 존재와 연계 된다. 직접적인 실제 사례로 지명된 것은 거의 없지만, 브리콜라주의 의미를 담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은 대안 교육, 자유학기제 등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이 해당한다. 학습자와 배움 중심의 학습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구들을 토대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이 브리콜라주와 닮아 있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대안 교육과 교육과정 이해 패러다임에서 추구하는 과정 중심의 편성과 운영이 해당된다. 즉 계획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보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즉흥적 일시적으로 조율하는 교육 과정은 브리콜라주의 전형이다.

교육 영역 외 선행연구들에서[26] 제시되는 소수이지만 다양한 브리콜라주의 특성은 짜깁기를 통해 새로운 것이 생산되는 것이며 이는 교육 영역에서 실천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 예컨대 팬소설과 같이 많은 참여들과 함께 구성하는 소설은 마치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형성된 집단지성처럼 새로운 하나의 결과물을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생산한다. 이 사례는 브리콜라주라는 창의성과 창조적인 역량을 생산하는 과정과 함께 협력이라는 소통의 장을 형성한다[29]. 짜깁기라는 것은 도구 간 경쟁을 통해서 하나만 선택되는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나 출신 아나츄이(El Anatsui)가 보여 주었던 버려진 상품 껍데기들을 연결해서 보여주었던 새로운 선들은 참여한 모든 재료들의 면과 선의 특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새로운 것이다[26]. 교육도 그 과정에서 경쟁만을 하면서 학력을 성취하는 것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각각 참여들의 특성을 충분히 발산시켜 창조적



인 생산물들의 생산을 지속하는 운동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자유를 강조하는 진보주의나 대안 교육에서 추구하는 학생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은 이와 유사하다. 이처럼 비판교육학자와 브리콜뢰르, 브리콜라주와 비판교육학은 서로 간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 4. 브리콜뢰르로서 비판교육학자

비판교육학에서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식적 해방이다. 그 과정은 해석학적 변증법적 사고를 담은 성찰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은 비판적 의식을 통해 자주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율적이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특성 없이 창의성이나 창조성, 그리고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협력은 서로 평등한 권력의 구조에서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위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이 비판적 의식을 가진 해방적 존재여야만 가능하다. 이를 비판교육학자는 지성인[30], 유기적 지성인[31][32], 변혁적 지성인[30] 경제지성인[33], 노숙성을 가진 지성인[34], 세속성 비판을 하는 공적 지성인[35]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비판교육학에서 주장하는 지성인임과 동시에 브리콜뢰르이다. 이 개념들은 교육자와 연구자의 모습, 실천적 태도와 의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성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성인이란 비판교육학적 지식인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지성이란 지식을 비판적 성찰에 의해 재구성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30]. 이것은 비판교육학에서 추구하는 의식적 해방을 달성한 또는 하고자 노력하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율적이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유기적 지성인은 그람시(A. Gramsci)에 의해서 개념화하였다. 전통적인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지식인은 교육과 각종 출판 도구라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통해 헤게모니를 재생산하고 그 구성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의하였다. 반면 유기적 지성인은 재생산이 아닌 유기적인 계승을 하는 사고 집단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회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경험과 문화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지성인을 말한다. 이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유기적 지성인을 생산한다[31][32]. 유기적 지성인으로서의 교사는 이러한 재생산에 참여한다. 유사한 성격의 변혁적 지성인은 사회 내 평등, 공평, 권력 관계의 모순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와 함께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30]. 변혁이 가진 의미는 참여라는 실천을 통해 진화라는 끊임없는 변혁의 운동을 생산하는 지성인의 특성을 담은 것이다. 경계 지성인과 노숙성을 가진 지성인은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주장되었다. 경계는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맥락들 사이를 의미한다. 이들을 넘나들며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자가 경계 지성인이다[33][34]. 그리고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자들이 가진 지속적인 이주 특성을 담아 노숙성을 가진 지성이라고 하였다[33]. 예컨대, 다문화 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계를 이동하는 지성인과 다양한 문화 간 위계적 구조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숙성을 가진 지성인을 의미한다[36]. 세속성 비판을 하는 공적 지성인은 사이드(E. Said)가 주장하는 지성인 개념인데, 세속성이라는 현실적인 맥락과 함께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실천적 비평을 하는 것이 지성인의 역할이다. 또한 권력의 구조를 이해하고 지배 계급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진 자가 지성인이다. 이러한 세속성에 대한 비평 실천이 지성인의 핵심이며 이는 공적인 특성을 가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방향과 브리콜라주도 서로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상호운영성, 투명성, 분권성 등과 같은 특성은 창의적 융합, 유연한 연결, 주체와 협력적 참여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비판교육학적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가 가능하며 생산할 수 개별의 유연한 결합을 통한 융합과 창의, 그리고 의존하지 않고 각 개별이 주체적 협력적인 특성의 4차 산업혁명은 브리콜라주가 추구하는 짜깁기를 통해 개별성과 융합성의 적절한 조화 속에 생산되는 창조성[37][38]과 그 특성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서로 간의 상호운영성을 고려한 짜깁기는 브리콜라주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비판교육학에서 실천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한 부재의 비평도 있지만 실제로 브리콜라주라는 의미에서 지금은 영·미권에서 주류인 질적 연구자들은 대체로 비판교육학자로 이해할 수 있다. 브리콜라주는 해석학적 비판적 변증법을 통한 짜깁는 과정이며 이를 수행하는 자는 브리콜뢰르이고 비판교육학자이다. 비판교육학을 토대로 한 연구와 교육은 국내 사정과는 달리 국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를 추구하는 지성인은 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유기적, 변혁적, 경제, 노숙, 세속 등의 의미로 이해해왔다. 아울러 비판교육학이라는 존재론과 인식론 배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담론으로 브리콜라주는 매우 타당하다.

## V. 결론: 시대정신을 담은 비판교육학

한국 교육은 패러다임 이동의 전환기에 있다. 움직임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부각된 것은 약 10여 년 정도인데, 그 또한 주류 집단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시민들의 촛불혁명과 함께 2017년 체제가 시작되고 정치적 주류 집단이 바뀌면서 교육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념처럼 적폐청산에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적폐라는 것은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군국주의와 식민주의, 학력주의와 성과주의, 경쟁주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 사회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그리고 상호연성, 정보투명성, 기술지원성, 분권결정성 같은 초연결, 투명성, 분권성의 의미도 담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지향하며 특정한 이론과 실천 담론을 가지고 사회 상황과 변화의 움직임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강조하며 적폐청산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을 위해서 비판교육학이 이론과 실천 담론으로 타당함을 본 논의는 주장하였다. 이는 해석학적 변증법을 기초로 의식, 이성, 합리성을 성찰, 이해, 해체, 재구성하며 해방으로 나가기 위한 교육 담론이다. 즉 능동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주적이고 자

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를 위한 교육이다. 이것이 시대정신에 적합한 이론적 담론임을 본 논의에서는 주장하였다.

이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비판교육학의 특성에 타당한 담론으로 브리콜라주를 제안하였다. 브리콜라주는 비판적 성찰을 해석학적으로 담은 짜깁기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 실행은 이미 국제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브리콜라주의 개념을 비판교육학을 위한 실천적 담론으로 논의하였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대정신을 담은 교육학을 위한 담론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민은 특히 현 교육 패러다임 이동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본 글은 적폐청산이 시대적 변화의 중요한 실행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를 위한 교육학을 위한 이론 담론으로 비판교육학과 그에 대한 실천 담론으로 브리콜라주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1] 박노자, *전환의 시대*, 한겨레출판사, 2018.
- [2]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 서강대학교출판부, 2017.
- [3] K.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송경진 옮김, *클라우스 슈바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 [4] 류태호,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5] 손화철, 이광식, 이정모, 이정엽, 임태훈, 장은수, 한기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북바이북, 2017.
- [6] [https://en.wikipedia.org/wiki/Industry\\_4.0](https://en.wikipedia.org/wiki/Industry_4.0)
- [7] 류태호, *성적 없는 성적표*,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8] 김은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범대학 예비교사의 교육패러다임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9호, pp.248-259, 2018.
- [9] 최광만, *조선시대 교육사 탐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10] 尹健次, *朝鮮近代教育の思想と運動*, 1982, 이명실, 심성보 옮김, *다시 읽는 조선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 살림터, 2016.
- [11] 정진화, *교사, 학교를 바꾸다*, 살림터, 2017.
- [12] 송순재, 손동빈, 강민정, 윤우현, 이부영, 김정안, 이상우, 손유미, 백화현, 구민정, 이주영, 최미숙, 김세희, 엄미경, *혁신학교, 한국 교육의 미래를 열다*, 살림터, 2017.
- [13] 박근영, “전국 시·도별 혁신학교 지정 및 운영 수의 변화 추이,” *교육정책포럼*, 제297호, 통권, pp.37-39, 2018.
- [14] 허창수, “비판교육학에 의한 세계시민교육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225-234, 2017.
- [15] <https://en.wikipedia.org/wiki/Pedagogy>
- [16] 한날, 최형규, 조영선, 정용주, 임동현, 이형빈, 이혁규, 이정희, 이수광, 오혜원, 오동석, 배경내, 박복선, 공현,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교육공동체*, 2012.
- [17] <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
- [18] P.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70.
- [19] J. L. Kincheloe, “Critical Pedago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Evolution for Survival,” M. Nikolakaki (Ed.), *Critical Pedagogy in the New Dark Age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pp.147-183, Peter Lang Publishing, 2012.
- [20] P. McLaren, “Critical Pedagogy: A Look the Major Concepts,” A. Darder, M.P. Baltodano, & R.D. Torres(Eds, 2nd Ed.), *The Critical Pedagogy Reader*, pp.61-83, Routledge, 2009.
- [21] J. L. Kincheloe, P. McLaren, and S. Steinberg, “Critical Pedagogy and Qualitative Research,” N. Denzin and Y. Lincoln (Eds. 4th Ed.), *The Sage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163-177, SAGE Publications, 2011.
- [22] S. W. Cho, *Critical Pedagogy Social Change*, 2013, 심정보·조시화 옮김, *비판적 페다고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살림터, 2014.
- [23] P. McLaren, *Che Guevara, Paulo Freire, and The Pedagogy of Revolution*, 1999, 강주현 옮김, *체 게바라, 파올로 프레이리, 혁명의 교육학*, 아침이슬, 2008.
- [24] C. Lévi-Strauss, *La Pensee Savage*, 1966, 안정남 옮김, *야생의 사고*, (주)도서출판 한길사, 2011.
- [25] N. Denzin and Y. Lincoln, “Introduction: The Discipline and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N. Denzin and Y. Lincoln (Eds), *The Sage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pp.1-28, 2000.
- [26] 허창수, “브리콜라주로서 질적 연구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278-287, 2017.
- [27] J. L. Kincheloe, “Describing the Bricolage: Conceptualizing a New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Vol.7, No.6, pp.679-692, 2001.
- [28] J. L. Kincheloe, “On to the Next Level: Continuing the Conceptualization on the Bricolage,” *Qualitative Inquiry*, Vol.11, No.3, pp.323-350, 2005.
- [29] J. L. Kincheloe, P. McLaren, and S. Steinberg, “Critical Pedagogy and Qualitative Research,” N. Denzin and Y. Lincoln (Eds. 4Th Ed.), *The Sage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pp.163-177, 2011.
- [30] H. Giroux, *Teachers as Intellectuals*, Bergin & Garvey, 1988, 이경숙 옮김, *교사는 지성인이다*, 아침이슬, 2001.
- [31] A.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Books*, Lawrence and Wishart, 1982.
- [32] K. Crehan, *Gramsci's Common Sense: Inequality and Its Narratives*, Duke University Press, 2016.
- [33] A. R. Janmohamed, “Some Implications of Paulo’s Freire’s Border Pedagogy,” Giroux, H. & McLaren, P. (Eds). *Between Borders: Pedagogy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Studies*, pp.242-252, Routledge, 1994.
- [34] H. A. Giroux, “Paulo Freire and the politics of postcolonialism,” *Journal of Advanced Composition*, Vol.12 No.1, pp.15-26, 1992.
- [35] E. W. Said,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36] 허창수, “Wee스쿨 교사 체험을 통해서 본 경계지성의 실존적 가능성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제21권, 제2호, pp.1-31, 2018.
- [37] 유양석,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과 준비 여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

권, 제3호, pp.566-575, 2019.

- [38] 진성희,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기술교육에 대한 사례조사 및 산업체 수요조사: 전자, 소프트웨어, 자동차 중심의 융합교육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pp.36-48, 2019.

저 자 소 개

허 창 수(Changsoo Hur)

정회원



- 2004년 8월 : 미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과학교육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교육 전공(철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육과정, 비판교육학, 질적연구방법, 국제교육협력